

司牧研究

제41집 (2018/겨울)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司牧研究』는 ‘계광학술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펴냅니다.

발 간 사

올해 2018년은 “반대받는 표적”인 회칙 「인간 생명」의 반포 50주년입니다. 그 저자이신 바오로 6세 교황성하께서 “영웅적 덕행”으로써 성인품에 올리르신 해이기도 합니다.

“Paul Sixth was right.” 바오로 6세께서 옳았습니다. 회칙의 메시지가 ‘예언자적 진리’인 것이 여러 분야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범위한 피임[反妊] 이용이 남성이 여성에 대한 존중심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 여성을 단순히 이기적 쾌락의 도구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 여성의 해방을 구실로 상거래되는 피임약과 기구들이 도리어 여성을 착취의 대상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는 것, 이 점들을 ‘우려’하셨습니다.

꼭 오십년이 되었습니다. 데이트 폭력, 리벤지포르노, 부부 강간, 낙태 자유와 동성 결합에 대한 합법화 요구, 시험관 아기 시술, 아동학대, 동거, 이혼, 혼외 출산 등의 증가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공 피임의 증가로 인해 여성에 대한 존중심이 상실되면서 국내외로 ‘미투’(#MeToo)운동을 불러일으키게 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증가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과격한 여성주의적 주장이 출현하게 된 것도 같은 맥락의 연장선인 셈입니다.

50주년을 기념해 관련된 주제들의 의미와 보람과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마련한 올해의 학술심포지엄 자리에는 식견 높은 전문가와 교회 안팎의 지성인과 신학생·수도자·청소년·어린이·난임 부부 등이 참여하여 열기를 높여 주었습니다.

먼저, ‘축사’ 말씀을 몸소 해주신 지극히 공경하올 구요비 주교님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게 모신 발표자들에게 다시금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번 호가 다른 어느 겨울호와 비교해도 보다 풍요로운 작품들의 향연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분량과 내용이 풍부해지도록 옥고들을 논단과 번역에 보내 주신 일곱 분의 저자들과 한 분의 역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겨울호에는 열두 편이 실렸습니다만 지면 관계상, 일곱 편의 논단과 한 편의 번역글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고, 네 편의 특집글들을 중심으로 간단히 그리고 발표 순서대로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교수인 박은호 신부는 「회칙 「인간 생명」에서 피임 거부의 근거로서의 자연법」에서 회칙이 인간에게 생물학적 법칙을 절대화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 인간의 자연적 경향은 인간 자신의 선을 실현하도록 정향한다는 것, 몸과 영혼의 이중적 합일체인 인간이 자신의 위격을 표현할 성(性)과 몸을 스스로조차도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몸에 대한 조작인 피임〔反妊〕 행위는 자연법적 요구를 성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 등을 설명해 줍니다.

두 번째로, 가톨릭대학교 윤리신학 교수인 본인은 줄고 「바오로 6세와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목적 접촉점 ‘인격적 사랑’—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몸의 신학」의 가르침을 중심으로」에서 회칙이 “예언자적 시각”을 제시한다는 것, 요한 바오로 2세의 「몸의 신학」이 회칙의 방법론적 약점을 보완하고 재평가해 준다는 것, 그 둘의 사목적 접촉점은 ‘인격적 사랑’이라는 것, 그 사랑은 여러 가지의 성격으로 묘사되고는 있지만 특히 혼인적이고 책임 있는 것이라는 것, 그 사랑을 훼손하지 않을 가족계획 방법은 ‘자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 등을 제시해 줍니다.

세 번째로, 서울대교구 통합사목연구소 부소장 겸 한국틴스타 담당 양주열 신부는 「바오로 6세 교황 회칙 「인간 생명」과 인격적 성교육 틴스타(TeenSTAR)」에서 바오로 6세께서도 인간 생명을 전달하는 책무의 어려움과 고뇌를 언급하셨다는 것, 그런 고뇌에 직면한 젊은이들이 교리를 바뀔 주던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한다는 것, 그런 요구에 부응한 것이 틴스타 프로그램이라는 것, 인격적 존재인 인간은 성적 행위에 있어서도 인격적이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성교육’ ‘인격을 드러내는 성교육’을 위한 청소년·소녀용과 성인 남·여용이 각각 마련되었고 열두 단원의 체험 교육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 등을 설명해 줍니다.

네 번째로,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나프로임신센터장 이영 교수는 「난임 치료의 새로운 희망, 나프로임신법(NaProtechnology)」에서 자연(nature)과 가임력(procreativ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나프로임신법이 ‘자궁점액’ 연구를 통한 빌링스 박사의 ‘배란법’과 힐저스 박사의 ‘클라이트 모델’을 거쳐 발전된 것이라는 것, 단순히 산아조절만이 아니라 난임 부부 치료와 가임기 여성의 건강증진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것, 그것은 보조생식기술(artificial reproductive technology)보다도 오히려 임신성공률이 높다는 것, 클라이트 모델만 이용해도 20~40%가 임신되며 내과적 치료를 병행하면 80%까지 임신성공률이 높아진다는 것 등을 임상사례들과 함께 소개해 줍니다.

“여성을 탄압하는 종교들은 다 사라져야 한다. [...] 여자의 존재는 인정해 주지도 않고, 여성인권 정책마다 태클을 거는 천주교를 왜 존중해 줘야 하나.”

어느 ‘위마드’ 유저가 “성체를 훼손했다”면서 올린 주장의 일부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악의적인 성체모독과 성체훼손 사건이 어디 한둘이었겠습니까. “조롱하고 모욕하며 침 뱉음”(루카 18,32)을 당하러 오신 예수님께서서는 허허 웃으시고는 단잠에 드실 수 있겠지만,

체계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천주교를 존중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나?”라고 하는 그의 주장을 한 철부지의 ‘관심끌기’용이라고 무시할 수만은 없었던 반성의 밤이었습니다. 저의 그리고 가톨릭교회 당국의 소통 방식을 재검토해 보라는 올림의 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잊기 쉬운 그러나 감사해야 할 분들을 소개합니다. 본 연구소의 운영과 학술지 발행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총무 최규하 신부님, 기금운용 김범연 신부님, 편집 민범식 신부님, 감사 전영준 신부님, 학술 조한규 신부님, 심사 허규 신부님께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사 때마다 동원되는 학생회와 과학부, 문화부 신학생들 그리고 출판 때마다 애쓰는 출판부 직원들, 시작부터 끝까지 조용히 수고하는 이은정 데레사 직원께도 소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2018년 12월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장
이동호 신부

司牧研究 제41집 2018 겨울

차 례

발간사/ 3

이동호

【특집】『인간 생명』반포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 현 사회의 흐름 안에서 드러나는
『인간 생명』의 예언성과 그 가치

축사/ 11

구요비

회칙 「인간 생명」에서 피임 거부 의 근거로서의 자연법/ 14

박은호

바오로 6세와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목적 접촉점 ‘인격적 사랑’/ 40

이동호

바오로 6세 교황 회칙 「인간 생명」과 인격적 성교육 틴스타(TeenSTAR)/ 74

양주열

난임 치료의 새로운 희망, 나프로임신법(NaProtechnology)/ 97

이 영

【논단】

「사랑의 기쁨」에 나타난 혼인과 부부 사랑의 의미/ 129

박정우

에큐메니컬 교회론에 대한 후기경 애버리 델레스(Avery Dulles, S.J., 1918-2008)의

전(全) 작품 분석/ 163

서한석

고통(suffering)과 통증(pain)/ 204

최규하

영적 돌봄을 통한 사회적 치유/ 222

박준양

영성 지도에 있어서 역전이(逆轉移)와 공감(共感)의 구별과 활용/ 248

차동욱

전례성가의 작곡과 우리말의 특징/ 279

박원주

『마이트라야니 상히타』(Maitrāyaṇī Saṃhitā) 1.8.1~2에 대한 번역노트- I / 323

박문성

【번역】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신학 사상/ 342

칼-하인츠 멘케, 조한규 옮김

【부록】/ 361

Ⅰ.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정관/ 363

Ⅱ.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계광학술연구기금 운영 규정/ 369

Ⅲ.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학술지 편집 및 심의 규정/ 372

Ⅳ.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연구위원 명단/ 374

Ⅴ.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정기 학술 심포지엄 연보/ 375

司牧研究 총목차(1994-2018 여름)/ 377

Contents

Editorial Preface/ 3	Rev. Lee, Dongho, S.T.D.
[Special Issue] The 50th Anniversary of <i>Humanae Vitae</i> : The Prophecy of <i>Humanae Vitae</i> Revealed in the Context of the Modern Society and Its Value · 9	
Congratulatory Address/ 11	The Most Rev. Koo, Yobi, S.T.L.
Natural Law as Fundamental of the Rejection of Contraception in the Encyclical <i>Humanae Vitae</i> / 14	Rev. Park, Eunho, Be.D.
A Pastor's Human Love as the Pastoral Contact Point between Paul VI and John Paul II Centering on the Teachings of Pope John Paul II's Theology of the Body Priesthood/ 40	Rev. Lee, Dongho, S.T.D.
<i>Humanae Vitae</i> and TeenSTAR, Personal Sexuality Teaching/ 74	Rev. Yang, Juyul, J.C.L.
NaProTechnology: New Strategy of Infertility Care/ 97	Prof. Lee, Young, M.D.&Ph.D.
[Articles]	
The Meaning of Marriage and Conjugal Love Appearing on <i>The Joy of the Gospel</i> / 129	Rev. Park, Jungwoo, Ph.D.
A Study about the Works of Avery Dulles on Ecumenical Ecclesiology Offices/ 163	Rev. Seo, Hanseok, S.T.D.
Suffering and Pain/ 204	Rev. Choi, Gyuha, Ph.D.
Healing Our Society through Spiritual Care/ 222	Rev. Park, Junyang, S.T.D.
The Distinction and Application between Countertransference and Empathy in Spiritual Direction/ 248	Rev. Cha, Dongwook, MA in Spirituality
On the Importance of the Texts in Composing Liturgical Music/ 279	Rev. Park, Wonjoo, D.M.A.
Translation Notes on the <i>Maitrāyaṇī Saṃhitā</i> 1.8.1 ~2-1/ 323	Rev. Park, Moonseong, Ph.D.
[Translation]	
A Theological Thought of Pope Benedict XVI: The Problem of Christocentric in the Theology II/ 342	Karl-Heinz Menke tr. by Rev. Cho, Hankyu, Th.D.
[Appendixes]/ 361	

□ 특 집 □

「인간 생명」 반포 50주년 기념 — 헌 사회의 흐름 안에서 드러나는 「인간 생명」의 예언성과 그 가치

주최 ·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장소 ·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진리관 대강의실

일시 · 2018년 11월 10일(토) 13:30~18:00

축 사

· 구요비 (서울대교구 중서울·선교 담당주교) ·

제1발표

회칙 「인간 생명」에서 피임 거부 의 근거로서의 자연법

· 박은호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생명윤리 교수·신부) ·

제2발표

바오로 6세와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목적 접촉점 ‘인격적 사랑’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몸의 신학」 가르침을 중심으로

· 이동호 (가톨릭대학교 윤리신학 교수·사목연구소 소장·신부) ·

제3발표

「인간 생명」과 인격적 성교육 틴스타(TeenSTAR)

· 양주열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틴스타 담당·신부) ·

제4발표

나프로임신법 — 난임 부부의 새로운 희망

· 이영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나프로임신센터장·교수) ·

· 사회: 최규하 (가톨릭대학교 철학 교수·신부)

